

국내 항만경제학 분야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손용정*

A Meta-Analysis on Research of Korean Port Economics -Focusing on Research Themes and Methods-

Yongjung Son

Abstract :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ports and they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ports. However, there have been no research that classified and organized the results comprehensive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ults of studies related to Korean port economics. For the purpose, we carried out a meta-analysis targeting 659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from 1991 to 2010.

For the meta-analysis on themes of port economics and methods, the study presented a total of three items to be analysed: First, we analysed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discussed themes and identified contents by analysing research methods used for the studies.

As a result, port economics have shown great growth in volume and recently, more attentions have been paid to ports along with increase of researchers, and themes and methods of research have been sub-categorized and diversified.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comparative studies should be added.

Key Words : Meta Analysis, Research Theme, Research Method, Port Economics

▷ 논문접수: 2011.11.16 ▷ 심사완료: 2011.12.23 ▷ 게재확정: 2011.12.29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01046330773@hanmail.net , 010-4633-0773

I. 서론

항만은 국내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전쟁을 딛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국내 제조업의 성장이었지만 그 기반에는 항만을 통한 완제품 수출과 원자재 수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항만은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항만의 기능을 항만을 통한 수출입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항만공사(Port Authority : PA)를 설립해 외국적 선사를 유치하거나 외국 항만과 제휴, 외국 항만 개발 및 운영 등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각 항만공사들은 외국 신흥시장에 나가 국내 항만 기항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외국 항만과 제휴로 정보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미 외국 항만 개발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항만에 대한 연구는 30여년 가까이 연구되어 왔고, 그 결과 많은 논문이 학계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항만에 관한 연구들은 항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정리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최근까지 수행된 국내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들을 전체적인 조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지인 한국항만경제학회지에 1991년부터 2010년까지 659편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연구의 성격이나 방법이 서로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화하려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 문헌연구와 다르게 특정 연구주제로 실시된 많은 연구들을 통계적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인 연구경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규칙성을 밝힐 수가 있어 연구성과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

기존문헌 검토만으로는 연구경향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과할 수 있다. 연구주제가 되는 영역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련의 연구결과를 역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단순서술식 기존문헌 검토와는 달리 메타분석은 연구경향에 대한 규칙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성찰에 유용한 방법이다.(Allen, 1999)

따라서 항만경제학과 관련된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며, 연구논문에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연구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메타분석

메타분석은 ‘-후에, -뒤에’라는 뜻을 지닌 회랍어 ‘meta’(Morwood & Taylor, 2002)와 ‘analysis’의 조어로 이루어진 방법론적 개념이다. 즉 이전에 진행된 연구 성과를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한 규칙성을 밝혀내는 메타분석방법이다(강진숙, 2008). 메타분석은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

Glass(1976)는 메타분석이란 여러 연구결과들을 수집하여 다시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분석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으로 어느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관하여 누적된 연구결과물들을 종합할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개별 연구의 결과들을 한데 모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 하겠다.(이송이 · 정희정, 2009)

일정한 주제에 관해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하고 검토하는 종전의 문헌조사 방법으로는 그 보고에 있어서 검토자의 선택적인 편견이나 자신의 가설과 반대되는 연구는 재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토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전 방법의 대안으로 메타분석이 제시되었다.(정소연 · 김철원, 2008)

메타분석은 종합적 메타분석과 분석적 메타분석으로 구분된다.(Wallace, 1992) 종합적 메타분석은 연구의 전반적인 주제와 방법들을 분석하여 특정연구 영역의 연구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적절한 방법이고, 분석적 메타분석은 한가지 개념이나 주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을 분석 단위로 삼아 측정된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류준호 · 윤승금 · 이영주, 2010)

Glass(1981)가 제시한 메타분석의 특징은 첫째, 메타분석은 계량적이다. 단순한 자료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방법에 의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연구결과물들을 함축성 있게 분류하여 모종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하여 계량적·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서로 상이한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연구들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연구에 포함시켜야 할 연구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연구들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메타분석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다. 각각의 단편적인 연구들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는 무시되어도 무방하다는 전제하에 일반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메타분석은 일반화와 실제적 간결성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함수를 찾으려 노력한다.(조재운, 2005)

다음으로 메타분석의 절차는 첫째, 연구문제의 도출이다.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목적을 제시한다. 설정된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가설이 설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둘째, 대상 연구 분야의 모집단을 규정한다. 메타분석의 모집단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 당시까지 이루어진 그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물들을 많이 수집하여야 한다. 셋째,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중요한 연구의 특성을 분류한다. 조사연구에서 질문지를 수집하여 분석할 때 코딩을 하듯이 메타분석에서도 개별 연구의 특성을 분류할 때 코딩양식을 이용한다.(권지은 · 이소희, 1999)

메타분석은 기존연구 검토와는 별개로 동일한 영역에서 전체연구를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거나 특정 이론이나 방법론을 누적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의 연구방법이며(황성재 · 박석철, 2004), 사회과학 내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관 및 방법론적 차이를 인정하는 일은 물론 그 역사적 연원 및 문화적 전통의 진정성을 존중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Faust & Meehl, 2002)

2.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본 연구는 먼저 연구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추세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며 연구논문에 사용된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연구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환경경제학 관련 연구의 대표적인 논문집이라 할 수 있는 『한국환경경제학회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논문의 분석대상 기간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환경경제학회지에 게재된 659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은 DBpia(누리미디어)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경제학 관련 학문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환경경제학회지에 대해서 20년간의 연구들에 대해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현실적으로 환경경제학에 관련된 모든 연구를 모두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일 논문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기간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으로 한정하였는데, 1985년 창간호와 1991년 이후의 연구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기간의 논문은 데이터베이스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에 대한 년도별 게재논문수, 연구논문별 저자수의 변화, 지역분포, 연구비 출처, 해외연구자의 참여여부, 소속, 논문작성 언어 등이 분석항목

으로 분류되었다. 각 분석 항목은 명목척도에 의해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분류 기준을 완벽하게 객관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객관적인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범주화를 위해서 연구자들간에 독립적으로 적성한 분류를 크로스 체크하여 1차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러한 구분을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객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범주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라면 분류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할 것이며 너무 많은 경우에는 구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나친 연구주제의 세분화는 학제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를 정확하게 어느 범주로 구분할 것인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동호·정이상, 2007)

메타분석은 이미 밝혀진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항만경제학과 관련된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는 어떠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는가?

연구문제 2 :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는 어떠한 연구방법에 의해서 연구되었는가?

연구문제 3 :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는 어떠한 연구주제를 다루었는가?

Ⅲ. 분석결과

1. 논문게재 편수 및 발행호수

1984년 7월 창립한 한국항만경제학회는 1985년 2월 창간호(제1집)에 총 5편의 논문으로 발행하였으며,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제26집까지 발행하였다.

1985년 창간호부터 2000년까지는 년 1회 학회지를 발행하여 제16집까지 발행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년 2회, 2005년 이후에는 년4회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63편, 2010년에는 54편의 논문을 발행하여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의 양적인 팽창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연구지’로 선정되면서 양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내는 등 항만경제학 분야 연구의 학문적 성과에 기여하였다.

<표 1> 연도별 논문집 발행 호수 및 게재편수

년 도	집	호	게재편수	
1991	7		35	
1992	8		18	
1993	9		20	
1994	10		55	
1995	11		42	
1996	12		39	
1997	13		32	
1998	14		26	
1999	15		17	
2000	16		18	
2001	17	1	8	16
		2	8	
2002	18	1	8	15
		2	7	
2003	19	1	11	22
		2	11	
2004	20	1	10	25
		2	15	
2005	21	1	8	45
		2	13	
		3	12	
		4	12	
2006	22	1	9	29
		2	6	
		3	9	
		4	5	
2007	23	1	9	38
		2	8	
		3	8	
		4	13	
2008	24	1	5	49
		2	16	
		3	8	
		4	20	
2009	25	1	14	63
		2	15	
		3	19	
		4	15	
2010	26	1	13	54
		2	9	
		3	15	
		4	17	

2. 관련 연구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

1) 저자수 및 지역 분포

논문작성에 참여한 저자 수 분포에서는 단독저자 비중이 66.8%에 이르고, 2인 공저가 22.2%와 3인 공저가 9.0%를 이루고 있다. 4인 이상 공저는 2.2%로 대부분의 연구가 단독연구 또는 2인 공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산업적, 학문적 융복합으로 인해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은 대표저자를 기준으로 한 출신지역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라권이 229편으로 34.7%, 경상권이 26.3%, 서울·경기가 22.9%를 분포하고 있다. 충청권, 강원권 및 해외연구자의 연구 비중은 12.6%로 이 세 지역의 연구자 비중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권과 강원권의 지리적 특성이 이 지역의 연구미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는 이 두 지역연구자의 연구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2> 저자수의 분포

저자수	빈도수(편)	비중(%)
단독저자	440	66.8
2	146	22.2
3	59	9.0
4	10	1.5
5	3	0.5
6	1	0.2
합계	659	100

<표 3> 지역분포

지역	빈도수(편)	비중(%)	회장출신지역
전라	229	34.7	5
경상	173	26.3	3
서울·경기	151	22.9	4
충청	20	3.0	-
강원	3	0.5	-
해외	83	12.6	-
합계	659	100	-

다음 <표 4>의 연구자 출신대학 분포 현황은 <표 3>의 지역분포와도 연관이 있는데 전라권, 경상권, 서울·경기권의 대학 소속연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저자를 기준으로 한 연구자별 논문게재 현황(1991-2010년)은 부산지역 D대학 소

속 K연구자와 광주지역 C대학의 P연구자가 총 19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포지역 M대학의 M연구자 16편, 전북지역 W대학의 P연구자 11편, 인천지역 I대학의 K연구자가 10편을 연구결과로 발표하였다. 발표편수의 차이는 있으나 총 659편의 연구에 대해 323명의 회원(대표저자 기준)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표 4> 연구자의 출신대학

출신대학	빈도수(편)	비중(%)
조 선 대	75	11.4
인 천 대	39	5.9
동 아 대	38	5.8
원 광 대	32	4.9
목 포 대	27	4.1
중 앙 대	27	4.1
K M I	25	3.8
전 남 대	25	3.8
순 천 대	23	3.5
한국해양대	18	2.7
경 남 대	12	1.8
창 원 대	12	1.8
군 산 대	11	1.7
호 원 대	11	1.7
동 서 대	10	1.5
목 원 대	10	1.5
항만연수원	10	1.5
부 경 대	9	1.4
고 신 대	8	1.2
동 의 대	8	1.2
인 하 대	8	1.2
합 계	659	100

2) 해외연구자의 연구참여 및 언어

연구결과의 세계적 확산과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추진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해외연구자의 연구참여 여부와 논문작성 언어를 <표 5>와 <표 6>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내소속 연구자로 구성된 논문은 총 575편으로 87.3%, 해외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연구 또는 공동연구는 84편으로 12.7%를 차지하였다. 논문작성 언어는 한국어 83.3%, 중국어 7.3%, 영어 6.2%, 일본어 3.2%로 총 조사대상 논문 659편 중에서 110편 16.7%가 외국어로 작성된 연구이다. 그러나 해외 소속 연구자의 연구참여는 2000년 이후에는 12편이나 그마저도 국내연구자가 해외소속으로 연구에 참여한 결과가 대부분이다. 국제화 측면에서의 연구결과의 확산보다는 국내 연구자의 양적 연구결과의 확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표 5> 해외연구자 연구참여

해외연구자 참여	빈도수(편)	비중(%)
국내연구자연구	575	87.3
해외연구자 공동연구	84	12.7
합 계	659	100

<표 6> 논문작성 언어

언어	빈도수(편)	비중(%)
한국어	549	83.3
중국어	48	7.3
영 어	41	6.2
일본어	21	3.2
합 계	659	100

3) 저자 분류 및 연구비

저자 소속에 분석결과(대표저자 기준) 국내 학계가 506편으로 76.8%를 연구원이 5.9%를 국내 기관과 기업이 31편이다. 그리고 해외 소속으로 83편으로 12.6%를 점유하고 있다. 해외소속으로는 중국기관 5.8%, 일본 학계 3.0%, 중국 학계 3.0%이고, 기타 소속은 총 5편의 연구가 있다. 산학연계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론과 실무를 종합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업계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기관 및 기업소속 연구자의 참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연구비는 총 연구대상 659편 중에서 147편이 연구비 수혜를 받아 22.3%의 연구가 연구비 수혜를 받아 게재되었다.

<표 7> 대표저자 분류

소속		빈도수(편)	비중(%)
국 내	학 계	506	76.8
	연구원	39	5.9
	기 관	17	2.6
	기 업	14	2.1
해 외		83	12.6
합 계		659	100

<표 8> 연구비 수혜 현황

연구비	빈도수(편)	비중(%)
수혜	147	22.3
비수혜	512	77.7
합계	659	100

2. 연구방법에 대한 특성 분석

문헌연구 54.0%, 실증분석 30.8%로 문헌연구방법과 실증분석방법이 84.8%로 편중되어 있으며, 사례연구와 조사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이 많이 이루어져 연구방법에 대한 편중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다양성과 현상에 대한 넓은 해석을 위해서 연구방법의 지나친 편중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와 탐색적 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에 대한 접근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표 9> 연구방법

연구방법	빈도수(편)	비중(%)
문헌연구	356	54.0
실증분석	203	30.8
사례연구	36	5.5
조사연구	27	4.1
이론정립	11	1.7
실태조사	10	1.5
탐색적연구	9	1.4
사적고찰	7	1.1
합계	659	100

<표 10> 실증분석 방법

분석방법	빈도수(편)	비중(%)
시계열분석	35	17.2
설문분석	31	15.3
DEA	30	14.8
AHP	22	10.8
산업연관분석	20	9.9
회귀분석	15	7.4
SWOT	9	4.4
비용편익분석	8	4.4
O/D분석	6	3.0
무역구조분석	4	2.0
기타	23	11.3
합계	203	100

<표 10>은 <표 9>의 실증분석 방법에 대한 세부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결과는 시계열 17.2%, 설문분석 15.3%, DEA 14.8%, AHP 10.8%로 4가지 분석방법이 58.1%로 실증분석법 또한 지나친 편중 현상을 보이고 따라서 다양한 분석법의 시도 및 도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3. 연구주제의 특성에 대한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에 게재된 659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주제 분류결과 55가지로 다양하였다. 그러나 항만정책(21.2%), 물류(10.2%), 항만개발(9.3%), 무역(7.7%), 경제(6.1%), 법제(6.1%) 6가지 연구주제에 60.5%를 차지하여 사회과학적 연구주제에 대한 편중이 심하였다.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연구주제

연구주제	빈도수(편)	비중(%)
항만정책	140	21.2
물류	67	10.2
항만개발	61	9.3
무역	51	7.7
경제	40	6.1
법제	40	6.1
환경	30	4.6
효율성	28	4.2
정보화	25	3.8
서비스	21	3.2
물동량	19	2.9
경쟁력	17	2.6
해상보험	15	2.3
투자	13	2.0
마케팅	10	1.5
운임	8	1.2
관광	7	1.1
유통	7	1.1
운송	6	0.9
해운산업	4	0.6
기타	29	7.4
합계	659	100

기타 연구주제로는 경영, 인력양성 및 수요, 재무, 항로, 금융, 노동, 생산성, 항만관리, 항만발전, 항만요율, 교통시설, 국제화전략, 노산관계, 도선요율, 리스크관리, 물류비용, 운송비용, 유통비용, 해상수송비용, 부두건설비용, 생명보험, 외자도입, 인적관리, 재정, 지식경영, 직무분석, 창고보관료, 터미널운영, 항만예산, 해양정책, 행정서비스, 환율, 회계 관련 연구가 있다.

IV. 결론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에 게재된 659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만경제학과 관련된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3개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는데, 연구문제 1은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는 어떠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는가? 연구문제 2는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는 어떠한 연구방법에 의해서 연구되었는가? 연구문제 3은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는 어떠한 연구주제를 다루었는가? 이다.

먼저 연구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첫째, 논문작성에 참여한 저자 수 분포에서는 단독저자 비중이 66.8%, 2인 공저가 22.2%로 대부분의 연구가 단독연구와 2인 공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대표저자를 기준으로 한 출신지역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라권이 34.7%, 경상권이 26.3%, 서울·경기가 22.9%를 분포하고 있다. 셋째, 연구자 출신대학 분포 현황은 전라권, 경상권, 서울·경기권의 대학 소속연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넷째, 해외연구자의 연구참여 여부와 논문작성 언어는 국내소속 연구자로 구성된 논문은 총 575편으로 87.3%, 해외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연구 또는 공동연구는 84편으로 12.7%를 차지하였다. 논문작성 언어는 한국어 83.3%, 중국어 7.3%, 영어 6.2%, 일본어 3.2%로 총 조사대상 논문 659편 중에서 110편 16.7%가 외국어로 작성된 연구이다. 다섯째, 저자 소속에 분석결과(대표저자 기준) 국내 학계가 506편으로 76.8%를 연구원이 5.9%를 국내 기관과 기업이 31편이다. 그리고 해외 소속으로 83편으로 12.6%를 점유하고 있다. 연구비는 총 연구대상 659편 중에서 147편이 연구비 수혜를 받아 22.3%의 연구가 연구비 수혜를 받아 게재되었다.

연구논문에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은 문헌연구 54.0%, 실증분석 30.8%로 문헌연구방법과 실증분석방법이 84.8%로 편중되어 있다. 30.8%를 차지하고 있는 실증분석 방법에 대한 세부 분석법의 비율은 시계열분석 17.2%, 설문분석 15.3%, DEA 14.8%, AHP 10.8%로 4가지 분석방법이 58.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은 총 분석대상 659편의 연구에 대한 연구주제는 55가지로 다양하였다. 그러나 항만정책(21.2%), 물류(10.2%), 항만개발(9.3%), 무역(7.7%), 경제

(6.1%), 법제(6.1%) 6가지 연구주제에 60.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항만경제학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최근 들어 항만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연구자의 증가 등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전 보다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이 세분화되고 다양화 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소속 연구자의 연구참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연구방법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권장하는 내용의 논문투고요령의 보완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유관 학회인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의 연구와 비교를 통한 연구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진숙, “국내 인터넷 연구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분석: ‘인터넷비평’ 유관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집 제2호, 2008, 173-443.
- 김광재·박종구·김경환, “한국 e-비즈니스 연구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메타분석:<e-비즈니스연구>창간호-2008년까지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0집 제4호, 2009, 29-47.
- 권지은·이소희,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4집 제1호, 1999, 79-101.
- 류준호·윤승금·이영주,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분야, 목적, 방법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집 제1호, 2010, 124-165.
- 우형진, “국내 인터넷 연구의 발전적 모색: 1995-2005년까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집 제1호(2005년 여름), 2005, 332-366.
- 이동호·정이상, “계량서지학적 분석과 키워드 기반의 메타분석을 통한 수산경영학 관련연구의 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8집 제2호, 2007, 1-24.
- 이송이·정희정, “에니어그램 연구동향 분석과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아동·청소년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4집 제2호, 2009, 121-137.
- 정소연·김철원, “한국컨벤션연구의 주제 및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컨벤션학회』, 제8집 제3호(통권 제20호), 2008, 7-24.
- 조재윤, “국어교육학 실증적 연구의 종합을 위한 메타분석 방법론”, 『국어교육학연구』, 제22집, 2005, 275-300.

- 한승진 · 이연주 · 송강영, “행복연구학회지 게재 논문의 메타분석적 접근”,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2집 제3호(통권40호), 2008, 13-20.
- 황상재 · 박석철, “국내 인터넷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 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8-2, 2004, 68-92.
- Allen, M., “The Role of Meta-analysis for Connecting Critical and Scientific Approaches : The Need to Develop a Sense of Collaboratio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50 No.4, 133-157.
- Morwood, J. & Taylor, J., *The Pocket Oxford Classical Greek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Glass, G. V.,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5, 1976, 3-8.
- Glass, G. V., McGaw, B. & Smith, M. L.,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SAGE Publication, 1981.
- Wallace, W. L.,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Metatheorizing*, Chapter. edited by Rutzer G. SAGE Publication, 1992, 53-68.
- Faust, D & P. E. Meehl, “Using Meta-Scientific Studies to Clarify or Resolve Questions in the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69, 2002, s185-s196.

국문 요약

국내 항만경제학 분야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손용정

항만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학계에 발표되어 왔고, 이러한 항만에 관한 연구들은 항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정리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최근까지 수행된 국내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들을 전체적인 조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항만경제학 관련 연구지인 한국항만경제학회지에 1991년부터 2010년까지 659편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만경제학과 관련된 연구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며, 연구논문에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인 연구내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항만경제학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최근 들어 항만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연구자의 증가 등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전 보다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세분화되고 다양화 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정 연구방법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권장하는 내용의 논문투고요령의 보완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유관 학회 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 메타분석, 연구주제, 연구방법, 항만경제학